

‘새로운 로마’ 비잔티움 천년의 흥망성쇠

비잔티움의 역사

디오니시오스 스타타코폴로스 지음, 최하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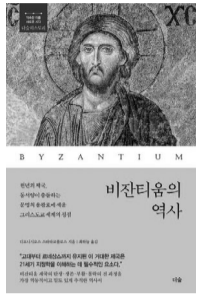
오늘을 가리켜 콘텐츠 홍수 시대라고 한다. 그만큼 많은 콘텐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통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다. 무수히 많은 콘텐츠 가운데 ‘핫한’ 콘텐츠 가운데 하나가 세계사다.

요즘 방영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세계사를 모티브로 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스토리의 시대라는 말처럼 세계사는 무궁무진한 이야기의 보고다.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게 세계사다. 시간을 초월해 사람 살아가는 모습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이다.

학창시절 배운 세계사 중 다스복잡하면서도 낯설지만 역동적인 제국이 있다. 바로 비잔티움 제국이다. 비잔티움은 동방으로 이어진 로마 제국 곧 동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당시 수도는 ‘새로운 로마’라는 뜻의 콘스탄티노폴리스였고 고대 그리스 도시 비잔티온에 건설됐다.

한마디로 비잔티움 제국(324-1453)은 1천 년 역사를 자랑하며 고대와 근대세계를 연결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 이후 ‘로마 제국으로서 아프리카-유라시아 대륙 서쪽에 존재’하며 동유럽을 비롯한 중동과 서구 문명권에 영향을 미쳤다.

비잔티움에 대한 최신 학술을 바탕으로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로 풀어낸 책 ‘비잔티움의 역사’가 발간됐다. 비잔티움 사회사에 대한 주목할 만한 저서를 펴냈던 디오니시오스 스타타코폴로스가 저자다. 중세사 학자인 저자는 지금까지 ‘고대 로마와 초기 비잔티움 제국에서의 기원과 역병’, ‘비잔티움의 물질문명과 행복’을 펴냈다.



라벤나의 산 비탈레 성당 벽에 있는 라벤나 주교 막시미아누스와 유스티니아누스 1세, 신하와 군인들간의 모자이크화. <대술 제공>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은 이렇다. “고대부터 르네상스까지 유지된 이 거대한 제국은 21세기 지정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동서양이 충돌하는 문명의 융광로에 세운 그리스도교 세계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잔티움 제국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였을까. “오늘날 그리스와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몇몇 지역은 비잔티움 제국의 핵심 지역이었고 이탈리아 남부 같은 몇몇 지역은 오랫동안 비잔티움 제국의 일부였으며, 이집트-팔레스타인-시리아-북아프리카 등은 상당한 일찍이 제국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긴 역사에서 주변부로 남았다.”

그러나 비잔티움 제국은 비잔티움에 수도를 정한 324년부터 오스만 제국에 멸망을 당한 1453년까지 모

든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다. 신학과 법, 학문이 꽃을 피우며 역사상 인상적인 제국으로 발돋움했다.

이 시기 각각의 황제들의 활약은 이미 세계사를 통해 배운 바다. 최초 그리스도교 황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천명했던 콘스탄티누스 1세를 비롯해 근대법 정신의 근간이 된 ‘로마법 대전’을 편찬한 유스티니아누스, 농부 아들로 태어나 문맹이었지만 군사적 업적으로 중흥을 견인한 바실리우스 1세 등 당대의 야심찬 황제들과 영웅들에 의해 비잔티움 제국은 1천년의 역사를 지속할 수 있었다.

부록에는 더 읽을거리 외에도 교황, 총대주교, 세계 공의회, 황제목록 등이 있어 비잔티움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대술 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바람이 와서 몸이 되다=베트남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 마이 반 판은 고향 열시에 대해 “진절의 빛, 송고한 이타심, 깊은 슬픔과 유머로 가득찬 시 세계”라고 평한 바 있다. 이번 작품집은 지금까지 시적 갱신을 끊임없이 도모하며 한국 시단을 대표해 온 시선집이다. 특정한 시세계에 국한되지 않는 품 넓은 서정성을 가꾸어 오면서도 분단이나 노동, 평화, 생태 등의 목직한 주제를 펼쳐낸 시인의 작품세계가 달라졌다. <창비·1만3000원>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경제사학자이자 세계적인 환경과학자인 바츨라프 스미의 신작. 통계분석의 대가로 꼽히는 저자는 에너지를 비롯해 환경, 식량, 인구, 경제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해왔다. 이번 책에서 과학적 통찰력과 거시적 안목으로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한다. 냉철한 진단은 미래의 위기와 기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북돋운다. <김영사·2만2000원>

▲유전자 로또=불평등이 공정한가 또는 불공정한가를 논의할 때 중요한 잣대가 ‘기회의 평등’ 개념이다. 그러나 기회가 평등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저자는 성인의 불평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출생의 우연이 있다고 보는데 가족 소득과 대학 졸업률의 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특정 유전 변이 세포를 지니고 태어나는 것 또한 출생 로또라는 것이다. <에코리브르·2만3000원>

▲모든 이별에 앞서가라=독일 대표 시인=에테, 니체, 릴케, 브레히트, 헤세 등 독일의 대표 시인 51명의 시 모음집. 제목은 릴케의 시 제목에서 따왔으며 105편의 시는 시대와 사조의 흐름에 따라 6부로 나뉘어 있다. 외국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는 독자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주고 어린 시절 릴케를 비롯한 독일 시인의 시를 읽으며 감수성을 키워온 이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준다. <창비·1만7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초원을 잃어버린 말=북아메리카, 미국 서부에서 야생 상태로 서식하는 말 머스탱은 우리나라에서는 ‘무스탕’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머스탱은 가족화된 말이 다시 야생화된 것으로 가족이었던 적이 없는 야생 마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푸른 들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던 야생마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개발에 내몰려 삶의 터전을 잃고 흩어지게 되는 이야기는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푸른숲주니어·1만3000원>

▲어쩌면 크고 어쩌면 작은 책=책은 100배 높이만큼 점프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마치 1665개나 되는 에벨탑 계단을 필적할 수 없어서 올라가는 것과 같은 능력이다. 우리 주위에 있는 크고 작은 것들은 어디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은 상대적 관점을 취하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지구의 아침·1만4000원>

▲너의 이름은 빠사삭=평화롭게 간식을 먹고 있던 스쿠 씨는 빵하는 소리에 깜짝 놀란다. 빠사삭은 자신에게 이름을 붙여준 스쿠 씨를 따라다니며 여기저기 온 집 안을 들쭉고 다닌다. 자기와는 다르

보를 제공하며 자료 사진과 도표 등을 통해 이해를 돕는다.

저자들은 “책에 실린 훈련을 통해 당신의 설득력과 창의력이 향상돼 적어도 각자가 일하고 학습하는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책은 출판사 ‘천년의 상상’이 진행하는 책과 강의의 콜라보 ‘북클럽’ 두번째 시리즈다. 첫 시리즈는 고병권의 ‘북클럽 자본’ (전 12권)이었다.

‘북클럽 은유’는 3권으로 완성된다. 4월에는 시, 동시, 동요, 노랫말, 광고, 예술작품에 들어 있는 은유 패턴을 알아가는 ‘은유가 만드는 삶-모든 예술가들이 감춰 온 기발함의 기원’이 발간된다.

6월에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정치에 들어있는 은유적 사고와 표현들을 추적해 분석하고 도식화하는 훈련을 담은 ‘은유가 바꾸는 세상-니체와 아인슈타인이 사랑한 생각도구’가 출간될 예정이다.

<천년의 상상·1만 9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모든 창의성의 원천...은유의 세계와 은유적 사고 훈련법

은유란 무엇인가

김용규·김유림 지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은유는 천재의 표상”이라고. 그리고 덧붙였다. “이것만은 남에게 배울 수 없다”고.

하지만 그의 시대로부터 2300년이 지난 지금, 인지언어학자와 교육신경과학자들은 은유가 작동하는 매커니즘 연구를 통해 은유적 사고가 지난 창의성의 비밀을 밝혀냈다.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 등을 쓴 김용규와 김유림이 함께 펴낸 ‘은유란 무엇인가-천재들의 생각을 훔칠 단 하나의 방법’은 창의성의 원천이자 ‘이해를 여는 열쇠’로 꼽히는 ‘은유’의 세계를 탐험하며 실용적인 훈련방법까지 배우는 ‘은유 설명서’다.

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유적 표현의 대명사 ‘내 마음은 호수’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야기

를 풀어간다.

1부에서는 은유의 두 가지 기능인 ‘설득’과 ‘창의’에 대해 소개하며 2부와 3부에서는 성공을 거둔 은유적 표현들 안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은유적 사고 패턴을 찾아내 설명한다.

4부에서는 은유적 사고를 훈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따라하기, 분석하기, 실습하기)을 제시한다. 그 중 ‘따라하기-반복’에서는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이네이스’를 통째로 낭송한 성 아우구스티누스, 50번도 넘게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따라 그린 파카소, 유명 건축가의 작품을 ‘모사’하며 공부를 이어간 안도 다다오 등의 사례를 소개한다.

또 ‘분석하기-이해’에서는 기계적인 학습과 의식적인 학습, 귀납적 학습과 연역적 학습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지막 ‘실습하기-실용’에서는 빈칸 채우기를 통해 은유를 확장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책에서는 보조관념을 떠올리는 법, 관찰력을 기르는 법, 부대 주머니 훈련법 등을 통해 은유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도 소개한다.

책은 복잡한 이론 대신 다양한 사례와 실용적인 정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